

# “수도권大 쏠림에 지방大 ‘극한경쟁’… 획기적 정책 추진을”

수험생 수 10년전 보다 28% 감소  
서·연·고 모집정원은 3.8% 증가  
“서울권 주요대 입시문턱 낮아져  
지방권 대학 정원감축효과 미미”



지난달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인구 절벽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줄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의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방대학의 정원 모집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입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수도권 선호 현상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1일 입시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상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대입 모집 정원과 수험생 수를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수능 응시생은 28% 감소했지만 서연고 모집 정원은 3.8%, 주요 10개 대학은 4.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장벽이 낮아지고 있

는 모습이다.

이는 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과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정원 외 신설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의학계열 선발인원은 2013학년도 2980명에서 2023학년도 6596명으로 121.3%(3616명) 수준으로 높게 증가했다. 이공계 특수대학 인원도 2013학년도 1280명

에서 2023학년도 2160명으로 880명(68.8%) 증가해 적지 않은 규모이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따라 수능 응시인원은 2013학년도 62만1336명에서 2023학년도 44만7669명으로 17만3667명(28.0%)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권 주요대, 의학계열, 이공계 특수대

학 정원 확대에 입시 문턱이 낮아져 상위권 학생들이 더욱 몰리는 양상을 보인다”며 “지방권 대학의 정원 감축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3학년도 대학 정시에서는 2, 3등급대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대학 정원난이 구제화됐다.

이렇듯 지방대학들의 정원 감축 노력에도 실질적인 구조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현식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역에서 젊은 층을 수요해야 하는데 지역별 격차가 심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역 내 일자리는 많지만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가려는 사회적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지역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원인으로 문화적 요인을 꼽으며 “대학에 올 때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재정에 대한 한계, 문화적 공유

가 안 되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2022)’ 보고서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대 위기는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는 곧 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이어졌고,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을 능가하게 됐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 취업자는 1352명이지만 비수도권 전체 취업자는 1338명으로 더 적게 나타났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등 지역인재 우대정책 확대’가 제시됐다. 지난 2014년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이촌한강공원에 ‘부유식 수영장’ 만든다

오세훈 서울시장 ‘아트피어’ 구상  
수상레저 넘어 문화예술 복합공간



한강 아트피어 조감도. /서울시

이촌한강공원에 사시사철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부유식 수영장 등 문화예술 공간을 갖춘 복합 향만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9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관광명소인 ‘해수욕장(Harbour bath)’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 아트피어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고 21일 밝혔다.

코펜하겐 브뤼게섬 해수욕장은 2003년 코펜하겐시에서 예산을 들여 만든 덴마크 최초의 부유식 공공수영장으로, 연평균 3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다.

한강에 생기는 부유식수영장은 수상레저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인 ‘아트피어(가칭)’ 시설 중 하나다. 아트피어는 전

시와 공연이 열리는 문화예술시설과 수상레저기구·선박 계류시설(승·하선, 정박, 보관 시설)을 의미하는 피어를 결합한 명칭이다.

시는 “유명도시의 강·항구·해안에 설치된 부유식 수영장을 벤치마킹해 ‘한강 아트피어’를 야외 수영장의 개방감과 한강에서 수영하는 듯한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브뤼게섬의 ‘하버

베이스’, 프랑스 파리 센강의 ‘조세핀베이크롤’, 독일 베를린 슈프레강의 ‘바데시프’ 등이 연안 자연 자원을 활용한 부유식 수영장의 대표적인 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해수욕장에서 시설 관계자로부터 인명안전 및 수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부유식 수영장 사례를 접목해 한강의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구상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촌한강공원에 신규 조성되는 ‘한강 아트피어’에는 선박 공공 계류시설과 문화·예술·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마린시설이 설치된다. 대상지는 현재 이촌한강공원내 청소년 수상체험·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북선나루터 자리다. 한강아트피어 조성에는 약 3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연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26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

## 서울시, 전통시장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

스페인 ‘산타 카테리나 시장’ 벤치마킹

서울시는 디자인을 혁신해 쇠락한 시장에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자원이 풍부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쉽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으며, 상인들의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높은 서울시 소재 골목형 전통시장(단독시장)이다.

시는 디자인 혁신을 위해 건축사, 교수 등을 총괄기획가로 선임하고, 계획수립부터 준공~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올 20억 투입, 소부장기업 25곳 육성

경기도, 4년간 100대기업 육성 목표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25개 내의 기업을 발굴해 최대 75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25개 내의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미래 제조업(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경쟁력의 토대인 소부장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며, 도내 G-펀드, 정책자금,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를 연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부장 100대 선도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의정부(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4 | 해짐 / 18:45

3월 22일(수) 음력 : 2월 1일

수도권 날씨 9 ~ 24°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3/24, 동두천 4/24, 가평 3/24, 파주 3/23, 서울 9/24, 양평 5/24, 용인 10/23, 수원 10/23, 인천 9/20, 평택 5/25, 백령도 7/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아마존, 또 9000명 추가 해고... “불확실성 고려” /사진 뉴시스  
▲푸틴 “아프리카와 관계 심화는 러시아의 핵심 목표”

▲중리 정상 만난 날 크림반도 폭발...우크라이나 “러 순항미사일 파괴”  
▲세계서 가장 출장비 비싼 도시 ‘뉴욕’...서울은 아시아 5위



▲“이기시다 총리, 오늘 우크라이나 방문... 젤렌스키와 회담” /사진 뉴시스  
▲중국 시장서 일본 자동차 기업들 ‘고전’...전기차 경쟁력 때문